



미국 증시, 위험자산 선호심리 지속으로 신고가 경신

미국 증시 리뷰

1 일(월) 미국 3 대 증시는 11 월 FOMC 경계심리에도, 양호했던 10 월 ISM 제조업 지수 결과, 테슬라(+8.5%)의 주가 급등 효과,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다우 +0.26%, S&P500 +0.18%, 나스닥 +0.63%, 러셀 2000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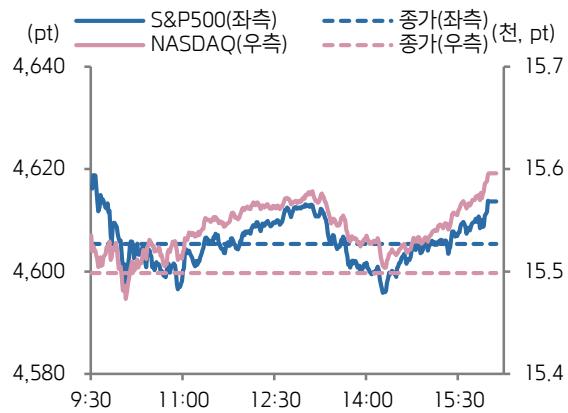
온세미컨덕터(+14.3%) 등 기업 실적 호조 소식과 주말 사이 G20 무역 분쟁 완화 소식에 힘입어 S&P500 지수는 상승 출발. 차익실현 매물로 약세를 보인 알파벳(-3.1%), 아마존(-1.6%) 영향으로 오전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테슬라(+8.5%), AMD(+4.2%), 스타벅스(+3.5%) 등 특정 대형주 쓸림 현상으로 대표지수들은 상승 (다우 +0.26%, S&P500 +0.18%, 나스닥 +0.63%, 러셀 2000 +2.65%).

미국 10 월 ISM 제조업 PMI 는 60.8pt 전월(61.1pt)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고, 예상(60.4pt)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임. 건설지출은 전월대비 0.5% 감소(예상 +0.4%, 전월 +0.1%).

업종별로 에너지(+1.6%)와 경기소비재(+1.5%)의 상승폭이 커던 반면, 커뮤니케이션(-0.7%), 헬스케어(-0.1%)는 하락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 지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1.6%)는 온세미컨덕터의 실적 호조 힘입어 큰 폭 상승. 테슬라는 이날 유럽 슈퍼차지 고속충전 네트워크 사용을 타사 전기차들에게도 허용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급등했고, 소비재 업종 상승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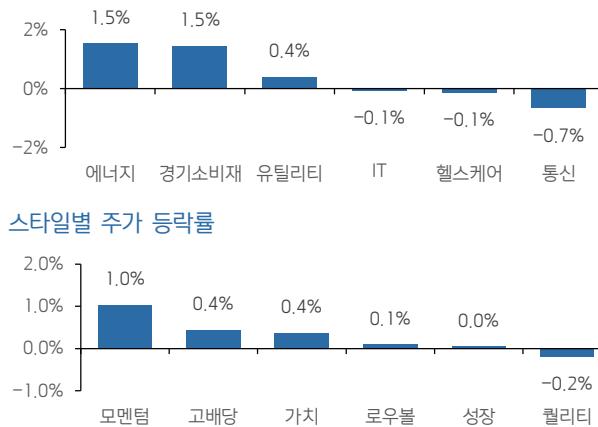
한편 주말 사이 G20 로마 회의에서 미국-EU 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회 합의 소식과 더불어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미-중 무역 관세도 완화될 가능성 모두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옐런 재무장관은 추가적으로 인터뷰에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연준 의장 지명에 대해 논의했고, 파월 의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613.67	+0.18%	USD/KRW	1,176.42	+0.69%
NASDAQ	15,595.92	+0.63%	달러 지수	93.87	-0.26%
다우	35,913.84	+0.26%	EUR/USD	1.16	-0.02%
VIX	16.41	+0.92%	USD/CNH	6.39	+0%
러셀 2000	2,358.12	+2.65%	USD/JPY	113.99	-0.01%
필라. 반도체	3,506.28	+1.5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943.09	+0.23%	국고채 3년	2.115	+0.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510	-5.3bp
Eurostoxx50	4,280.47	+0.7%	미국 국채 2년	0.499	+0.2bp
MSCI 전세계 지수	745.23	-0.23%	미국 국채 10년	1.556	+0.4bp
MSCI DM 지수	3,174.73	-0.15%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64.75	-0.89%	WTI	83.88	+0.37%
MSCI 한국 ETF	79.84	+0.44%	금	1794.6	+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8.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테슬라(+8.5%) 주가 급등에 따른 국내 전기차 벤류체인 관련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
-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1.6%) 상승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 미치는 영향
- 삼성 SDI, 카카오뱅크 등 주요기업들 실적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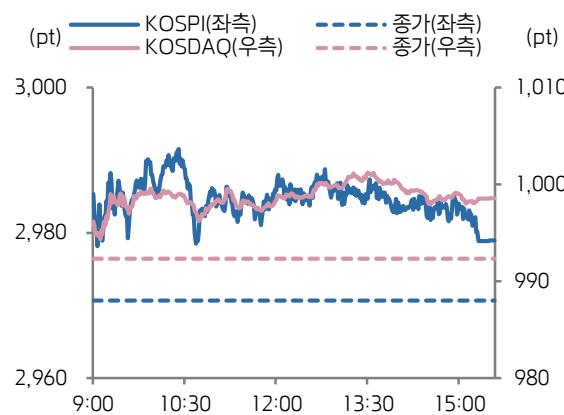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공급난 및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악재로서 증시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 10 월 ISM 제조업 지수(60.8, 예상 60.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규주문(66.7→59.8), 생산(59.4→59.3)이 둔화되었으나 이는 공급자배송(73.4→75.6), 가격(81.2→85.7) 등 공급난과 관련된 충격에도 미국 내 수요는 견조한 것으로 보임. 현재 3 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들 중 약 80% 이상이 예상보다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탄탄한 수요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

1 일 발표된 한국의 10 월 수출(+24.0%YoY, 수출물량 +6.0%, 수출단가 +16.9%)도 마찬가지. 자동차(-4.7%), 차부품(-01.2%)를 제외한 반도체(+28.8%), 석유화학(+68.5%), 가전(+13.9%), 2 차전지(+1.4%) 등 나머지 15 대 주요 품목들이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은 공급난의 여파가 국내 수출 산업에 제한적이 영향만 가하고 있음을 시사. 따라서 공급난의 해소가 현실화 되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난에 대한 우려는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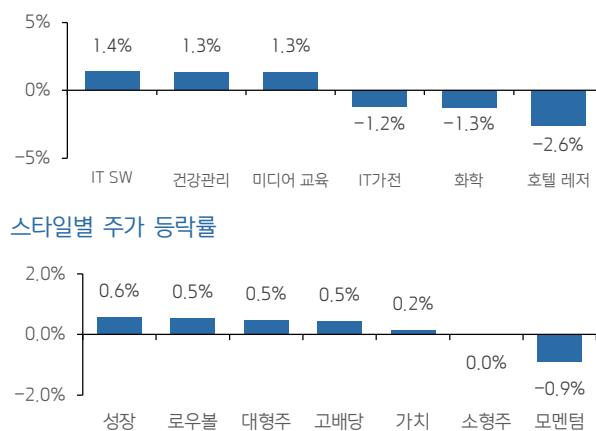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하면, 금일 국내 증시는 11 월 FOMC 경계심리에도 위험자산선호심리 지속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전 거래일 테슬라(+8.5%), 포드(+5.1%) 등이 전기차 사업 투자 확대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금일 국내 자동차 및 2 차전기 관련 업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전망. 미국 증시에서 중소형주(러셀 2000 +2.7%) 장세가 전개됐다는 점은 국내 중소형주 업종에도 긍정적인 주가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 다만, 최근 연이은 급등세를 보였던 일부 신기술 관련 테마 업종에서는 단기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됨에 따라 주가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